저희가 토론 할 내용의 주제는 영화 아일랜드 입니다. 이 영화는 2005년에 나온 복제인간, 장기이식, 인간의 존엄성 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의 복제인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 상품으로 복제인간(클론)을 신청하면 회사측에서 복제인간을 제작합니다. 회사는 복제인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감정, 생각 등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살아 움직이며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 복제인간들을 몰래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복제인간을 만들 때 지구가 오염되 인간이 멸종되기 직전에 이르러 구출되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기억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섬 인 아일랜드에 추첨을 통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추첨된 복제 인간들은 사실 보험 가입자인 진짜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떼어 주는 수술을 한 후 죽거나,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의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제인간의 임무를 다하고도 죽지 않을 수 있더라도 복제인간을 무조건 죽이는 것은 회사측이 몰래 숨겨놓는다는 비밀에 대한 유지를 위해 그런 것 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장기적출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토론할 것 입니다.

찬성

저는 복제인간을 만들어 장기 이식 등 인간의 삶을 연장 시키는 데에 찬성합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만으론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고가 발생해 장가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식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늘어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런 복제인간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제인간은 하나의 인격이 아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장기 이식을 통해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출을 위해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복제인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시초가 양성생식, 암컷과 수컷의 생식세포가 만나 수정란 만드는 것이 아닌 단성생식, 스스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즉 자신의 DNA를 통해 자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한 장기를 복제인간에게서 적출하는 행위는 비안간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찬성

복제인간의 장기사용에 대한 찬성의견 입니다. 복제인간을 만들 기술이 존재한다면 물론 장기를 부분적으로 만들어도 되고 인공장기를 이용하는 기술 또한 사용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면서 어느 곳이 다치거나 노화되어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복제인간을 만들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제인간은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자신의 DNA로 복제인간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뜻은 자신의 DNA로 부분적인 인공장기의 구현 역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생각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노쇠화는 긴 시간을 두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충분히 인공장기만을 만들어가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의의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급할 때 사용할 주요한 장기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사고에 따라 필요한 작은 장기들을 제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한번에 많은 장기를 적출하거나 뇌와 심장같이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장기를 적출한다면 복제인간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연장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장기적출 용도로 쓰는 것은 옳지않고 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